



대행 스님

## 무슨 일이 닥치든 근본에다 놓고 굴릴 줄 알아야

(지난 호에 이어서)

**질문자(2남):**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것을 직접 듣기도 하고 책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서 의문난 점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. 첫째,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인연 또는 죄업, 이런 것에 전부다 짓어 있는데 이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행을 해야 되고 또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,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구제받을 수 없다 하는 첫 번째와 그다음 두 번째로는...

**큰스님:** 한 가지씩 해요! 먹는 것도 퍼 넣으면 체하지 않아요? 따지고 본다면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얘기해 드렸습니까? '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, 공동분담이다, 내세울 게 없다.' 했죠? 그렇다면 그 업이 어디 불을 자리가 있습니까, 네? 업 불을 자리도 없고 애고 불을 자리도 없고 병고 불을 자리도 없는데 여러분의 관습 때문에, 여러분의 습관 때문에, 어리석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도 '아이구, 손이 있다지?' 하하하... 요것부터 머리에 들어오는 겁니다. 또 무슨 공장을 하는데도 '아, 고사를 지내야 된다더라.' 하는 습관, 또 '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...' 하는 습, 착! 이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그런 관습, 습 때문에 그런 거지,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?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던가요?

이 허공은 탁 트였어요. 지붕도 없고 삼바사방이 툭 터졌어요.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. 지금 마음이 맥의 집을 갔다 오려고 해도 갔다 올 수 있죠, 네? 지구를 벗어나서 달 태양 뭐, 다른 어떤 혹성에도 한 찰나에 갈 수 있고 한 찰나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게 마음이에요. 한 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. 심성 안의 천안으로 인해 가고 오는 것이 볼 수 있는데, 이 눈은 그대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.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이 끌어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. 그런데 업이 불을 자리가 있을까요? 모두가 여러분 관습 때문이고 어리석은 의심 때문이고 들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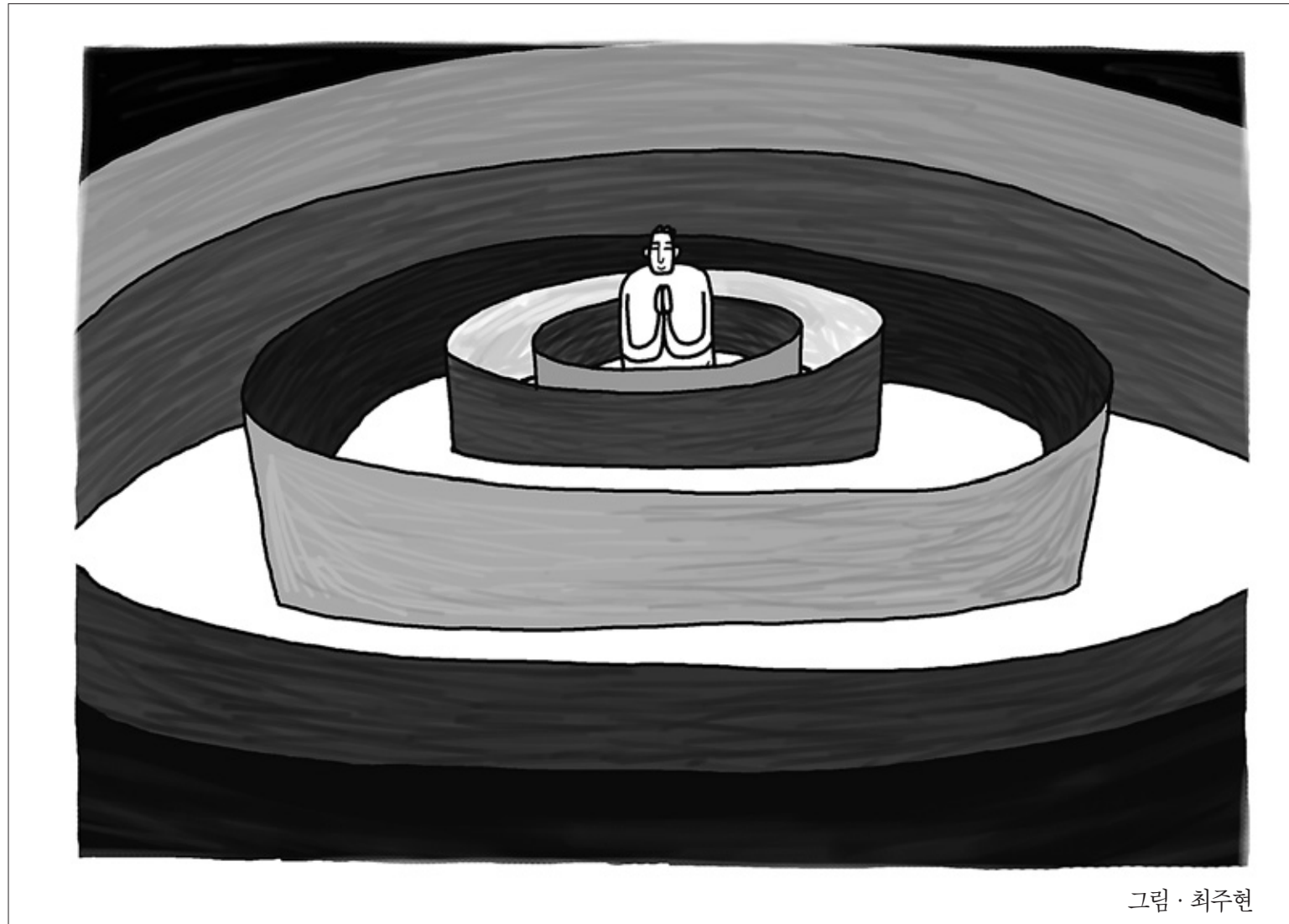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온 습 때문에 그렇습니다. '이렇게 살아야지, 살아나가는 게 이러니까 이래야지.' 이것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?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.

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의 의식들이 몸 안에 전부 들어 있다. 그것이 실 사이 없이, 좋게 한 거는 좋은 것이 나오고 언짢게 한 거는 언짢게 나오고, 이렇게 그냥 수시로 나오는데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해 놓는다면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, 이런 거를 말씀해 드린 겁니다. 그렇다면 뭐가 남습니까? 무엇이 닥치든 '너만이 할 수 있어.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.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니 내가 해결해야지.'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아라 이 소립니다. 놓고 굴릴 줄을 알아라. 애고가 들어오

면 '애고가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애고가 없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' 하고 거기다가 되돌려 놔라. 그래야 앞서 입력되어 술술 나오던 게 다시 입력을 하니까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런 소립니다. 자세히 가르쳐 드렸습니까?

**질문자(2남):**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사람은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개라든지 고양이 닭 소, 이와 같은 동물도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에 사람으로 한 번씩 되었는지, 또 미래에 죽어서 다시 또 사람이 되는지, 이런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.

**큰스님:** 그렇게 하십시오. 허허하... 물과 불이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내가 어떻게

사는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 이 겁니다. 그러니까 악과 선을 다 거기다 놔라.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일이 생기면 '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.' 하고 거기다 놓아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모습이 주어지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모습이 주어지는 겁니다. 즉 미래가 현실로 다시 오니까 미래의 그 모습은 현실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거든요.

그래서 '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으로 든다.' 이런 소리는 뭐냐 하면 만약에 독사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, 독사 굴에 들어가서 독사로 태어나면 독사의 습

이 그냥 배서 당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독사보다가 수없는 나날을 그렇게 돕니다. 개구리로도 되고... 오간 지옥이다. 한다면 그냥 땅속에 묻혀서 사는 벌레 있죠? 그러니까 국내 밥내도 못 맡는 아주 그런 곤충이 됩니다. 이런 오간지옥고를 겪는 겁니다.

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순간순간 바뀌집니다.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도 내가 잘하면 잘한 게 오고 못하면 못한 게 금방금방 옵니다. 그건 예누리가 없어요. 우연도 없습니다. 그렇듯이 잠깐잠깐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서 그냥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회사가 융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 도리가 있는 거죠. 그러니 우리가 생사의 윤회에 걸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 씩씩이에 따라서며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. 영원토록 말합니다.

**질문자(2남):**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인지?

**큰스님:** 실제입니다! 아니, 실제로 실제 아닌 걸 어떻게... 그거 어떻게 방편입니까? 정말 실제입니다! 정말 예누리가 없습니다. 즉 말하자면 자기 전자에 살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 부(父)와 현재 자기 자(子)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 이 그 도리를 알게 돼 있습니다.

**질문자(2남):**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부처님의 구원은 육체가 멸한 후의 세계에 서만 있는 것이지, 즉 말하자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부처님의 그 분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**큰스님:** 그럼 알기 쉽게 얘기해 드리지요. 아버지가 있는데 말합니다, 여러분은 가정살이를 하시죠? 만약에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가방을 싸 짊어지고 나갔다 한다면 아버지가 억지로 하시겠습니까? 억지로 하다가 부러지죠.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억지로 하

▶ 26면으로 계속



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!!

##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꿀가 아니다

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

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.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.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,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.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

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?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.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?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.

- 본문 중에서

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- (제) 한마음선원 출판부 [www.hyunbulshop.com](http://www.hyunbulshop.com)

- ▶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(법회별 출간)
- ▶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·법어·계승·선화의 집대성
- ▶ 신행요전(법요집)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
- ▶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금강경(독송용)
- ▶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(Korean/English)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수경(한글/영어)

10,000원  
A5 / 287쪽